【국어 산책】

목포·무안 지방의 방언을 찾아서

오홍일
전 목포정명여고 교사

'말 탄 사람 끄덕끄덕/ 소 탄 사람 끄덕끄덕/ 할메 등에 업힌 사람/ 호상져서 끄덕끄덕'

어렸을 적 무슨 일에 수가 틀려서 소리내어 울라치면 할머니가 등에 업고 어르면서 들려 주시던 동요의 노랫말이다. 그때 할머니 등에서 전해 오던 다스하고 포근함, 그리고 발돋움해 가면서 가볍게 굴러 주시는 데서 오는 율동감에 나도 모르게 울음을 그치고 이내 풀어졌던 것 같다. 그럴 때면 항상 할머니 등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내가 샘이 나고 미웠던지 누님은 '말 탄 놈도 끄덕끄덕/ 소 탄 놈도 끄덕끄덕/ 우리 할메 등탄 놈은/ 한자(혼자) 좋아 끄덕끄덕' 하며 '놈'이란 말에 힘을 주어 짓궂게 나를 놀려 댔다. 누님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시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시던 할머니가 가신 지도 꽤 오래 되었고 이제 내 나이가 그때 할머니의 연세보다 더 많아져 버렸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잊히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그 노랫말에 나오는 '호상지다'라는 낱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호상지다'의 풀이가 "㉥「방」 '재미있다'의 방언(전남)."이라 되어 있다.[1]

'표준국어대사전' 이전에는 사전에 오르지도 않았던 낱말인데 표제어로 올

라 있다는 것만도 반가웠다. 그리고 이 말은 이 고장에서 재미있을 때 쓰는 방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과는 좀 다르다. 그것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위아래로 출렁이듯 움직이고 리듬감이 수반되어 상쾌하고 재미있을 때에 쓰이는 말이다. 부연하면 가로질러 뻗어나간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서 가볍게 구르면서 넘실거리듯 상하로 움직이거나, 줄탈 때 줄이 위아래로 낭창거리는 것을 사투리로 '홍청거리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이 나뭇가지나 줄을 탈 때 느끼는 재미를 '호상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에 든 노랫말을 보더라도 소나 말을 탔을 때의 일정한 율동에서 느끼는 재미나 할머니의 등에 업혀 어르는 데서 맛보는 쾌감을 '호상지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리듬감을 수반하여 상하로 출렁이는 데서 느끼는 재미를 나타낸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 방언사전'에는 '호상지다'를 "형 (흔들거리는 것을 탈 때) 재미있다."로 좀 더 쓰임에 가깝게 풀이해 놓았다.[2] 그러나 어렸을 적에 기차를 타거나 마차를 타면서 앞뒤나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호상지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말의 쓰임을 알아본 바로도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재미있다'라는 말만으로는 '호상지다'의 뜻을 온전히 전하거나 바르게 나타냈다고 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갖는 어휘들은 비록 사투리일지라도 어떻게든 살려서 널리 쓰였으면 좋으련만 하고 늘 생각해 왔다.

이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뜬금없다'라는 말만하더라도 그 이전의 국어사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낱말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나이 또래의 이 고장 토박이들 사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흔히 써 왔고 늘 들어오던 터여서 익히 알려진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서술어로보다는 '뜬금없는' '뜬금없이'라는 어형으로 활용

1)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2) 이기갑 외 4인(1998). 「전남방언사전」. 서울: 태학사.

되어 '뜬금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게.'라거나 '뜬금없이 웬 일이냐?'와 같이 관형어나 부사어로 더 자주 쓰여서 비슷한 다른 말이 하지 못하는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어사전에도 올라있지 않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접할 수가 없으니 사투리이겠거니 생각하며 자연히 공적인 자리나 글에서는 쓰기가 머뭇거려졌다. 그러면서도 남다른 뜻으로 요긴하게 쓰이는 낱말이 잊히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긴요한 말들이 다른 고장에도 묻혀 있을 것이며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1932년에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농촌 마을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다. 학교 수학 시기의 몇 년과 군대 생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목포와 무안을 중심으로 한 이 고장에서 생활하면서 교직에 종사하며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임했다. 그런 점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고장 사투리와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업상 자연스럽게 사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사투리이지만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모아 왔다. 이번에 그 중에서 사전에 실리지 않은 낱말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다음에 드는 말들은 그런 어휘 중의 일부이다.

ㄱ

개웅 - ㊊갯벌 사이로 난 물줄기. 갯고랑. 한자로는 영(溪)으로 쓴다. 깊이 패어 있기 때문에 썰물에도 작은 배는 드나들 수 있는 물길. ¶썰물에는 개웅을 타고(따라) 들어와야지 잘못하면 배가 뻘등(갯벌)에 엮혀(얹혀) 버린다.

거룽 - ㊊대문이나 사립문 앞 언저리. ¶집안에서 시끄럽게만 말고 거룽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남의 집 거룽 앞에서 놀면서 어질면(어질러서는) 안 된다.

굴렁거리다 - 동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 유동적인 상태가 잇따라 계속되다. ¶수랑(수렁) 가까이에 가지 마라 땅이 굴렁거려 자칫 잘못하면 발이 빠지는 수가 있다.

굴렁굴렁 - 부비닐 자루나 고무 자루 등에 물이 꽉 차지 않게 들어 있어 자루가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유동적인 모양. 작은 말은 '골랑골랑'.

굴렁굴렁하다 - 형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흔들거리다. 작은 말은 '골랑골랑하다'. ¶수랑(수렁) 가까이의 땅은 언제나 굴렁굴렁하다.

귀얇다(기얍다) - 형귀가 여리다. 심지가 굳지 못해 마음이 흔들리다. ¶그 양반 귀얇은 영감님이라 놈이 좋자는 대로만 하지=그 양반 귀가 여린 영감님이라 남이 좋다고 하는 대로만 하지./귀얇은 사람과의 약조(약속)는 믿을 수가 있어야지.

깔따구 - 명여름철이면 이 고장 바닷가에서 극성을 부리던 이 고장 특유의 아주 작은 곤충. 깔따구한테 물리면 물린 자리가 부어오르면서 몹시 가렵다. 공해가 더해지면서 그 수가 현저히 줄어 이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아직도 여름철 바닷가에서는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모기나 각다귀와는 전혀 다른 곤충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인들도 몹시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으로 이 곤충에 대해 연구하게 된 내력과 연구한 내용을 기록에 남겨 놓았다.[3)]

꼬작 - 명꼭대기. 끝. 끄트머리. 맨 위 등의 뜻으로 쓰이는 말로 간짓대의 맨 끝을 간짓대꼬작, 한 동네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집을 꼬작집 등으로 말한다. ¶(어린 아이의 거짓말을 다그치면서) 바른 대로 말해 니(네) 상투꼬작(끝)에 앉아서 다 알고 있으니께(있으니까)./ 우리 집은 이 동네 꼬작집이여라우=우리 집은 이 동네 맨 윗집입니다.

꼽사댕이 - 명꽁보리밥. 보리나 잡곡으로만 익힌 밥. ¶하도 끄니(끼니)마다 꼽사댕이만 삶은께(삶으니까) 식구들한테 낯짝이 없어 죽것그만이라우(죽겠습니다).

---

3) 목포부(1930). 『목포부사(木浦府史)』. 도쿄 : 삼수사(三秀舍). 권말부록-여담일속. 15~18.

ㄴ

늦손 - ㊥장래가 희망적이거나 바람직한 조짐. ¶(집안이 잘 되어 가는 집 자식들의 행동을 칭찬하며) 늦손이 있는 집 자식들은 멋(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아무리 아껴서 돈을 모아 봤자(봤자) 자식들이 늦손(=느자구)이 있어야지 말짱 헛일이여.

※ 같은 뜻이면서 부정적이거나 낮추어 말할 때는 뒤의 용례처럼 '느자구'로 쓰기도 한다.

ㄷ

닥드리 - ㊥준비. 차비. ¶일할 닥드리도 안 해놓고 놉들만 불러났어?=일할 차비도 안 해놓고 일꾼들만 불러 놨어?/ 닥드리를 잘해 나야(놔야) 일이 십지(쉽지).

닥드리하다 - ㊦일을 하기 쉽도록 미리 준비하다. ¶내일 모심을(모내기할) 논 닥드리하느라고 오늘 정신 없었네.

대통만하다 -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대통만한 것들이 댐배는 뽈짝뽈짝 피고 있다=조그마한 것들이 담배는 벌쭉벌쭉 피우고 있다.

더둥개질 - ㊥물이 줄어들거나 물을 거의 품어낸 물웅덩이 등에서 맨손으로 더듬어서 물고기를 잡는 일. '더듬개질'의 변전인 듯함. ¶냇물이 줄어서 더둥개질만 해도 고기 한 바구리(바구니)는 일없이(문제없이, 쉽게) 잡는다고 허데(하던데).

더우가심 - ㊥더위가심. 더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일. 더위를 씻어내는 일. ¶(냉막걸리를 권하면서) 자! 더우가심으로 시언한(시원한) 막걸리 한 잔 받게.

두담박질 - ㊥마음이 급해서 달리는 달음박질. ¶애기(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고무신을 벗어 들고 두담박질을 해서 뛰어갔는디(뛰어갔는데) 어쨌는가 모르겄소(모르겠습니다).

땅꼬작 - ㊥지게 위쪽 한가운데에 갈고리 모양의 나무를 덧대어 만든 것으로

지게에 거칠고 부푼 짐을 얹고 띠꾸리(밧줄)로 짐을 조일 때 거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 ¶나뭇짐이 부풀지 않게 띠꾸리를 땅꼬작에 걸고 단단히 조여라.

ㅁ

몬지자락 - 명 먼지자락. ≒먼지잼. 여름 날 땅에 먼지만 일지 않을 정도로 뿌린 소나기. 비를 몹시 기다리는 여름날 빗물이 땅위로 흐르지 않을 만큼만 내린 비. 몹시 기다리던 비가 적게 왔을 때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기앙에 올라먼 곡식 뿌리에 물이 들게 올 것이지 게우 몬지자락만 하고 말았네 그레=기왕에 올 바에야 곡식 뿌리에 물이 들게 올 것이지 겨우 먼지자락만 하고 말았네 그려.

무 : 다 - 동 만들다. 축조하다. 특히 나무로 배와 같이 덩치가 큰 것을 만들 경우에 쓴다. ¶새로 배를 무어서 첫 잽이를 나갔는디 벨 재미를 못 봤다고 허데=새로 배를 만들어서 첫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별 재미를 못 봤다고 하던데.

ㅂ

반섞이 - 명 쌀과 잡곡을 반반씩 섞어서 지은 밥.=반섹이 ¶일제 때는 부잣집이라야 반섞이를 먹고 살았제(살았지), 우리같은 집이야 꽁보리밥도 천신하기 어려웠으니께(차지가 되기 어려웠으니까).

보리테 - 명 이웃 논보다 높은 곳에 있는 논배미의 논 가장자리를 이르는 말. ¶웃논 보리테 지구먹에서 물 안 빠지게 잘근잘근 잘 볿아라=윗논 가장자리 쥐구멍에서 물이 안 빠지게 잘근잘근 잘 밟아라.

보초없이 - 부 바람직하지 않는 짓이나 방정맞은 행동을 하는 모양. 흔히 부정적이거나 나무랄 때 많이 쓴다. ¶밥 묵으면서(먹으면서) 보초없이 왜 다리는 달달 떨고 있냐.

빛감(빗감) - 명 어느 자리에 얼굴만이라도 내미는 일. 모습만이라도 나타내는

일 ¶그 사람 요새는 먼 일인지 빛감도 안 헌다=그 사람 요새는 무슨 일인지 얼굴도 안 내민다./ 먼 일이 그리 바빠서 동네 사랑에 빛감도 안 헌가(안 하는가) 얼굴 잊어버리게 생겠네(생겼네)./ 빛감도 않는다=모습도 나타내지 않는다.

ㅅ

삿참하다 - 동1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면하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하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디차(뒤차)가 곡예 운전을 하면서 추월하는 바람에 삿참했지. 2영리한 척 교활하게 군다. ¶그런 삿참한 짓 허고 댕기다가는(하고 다니다가는) 언젠가 꼬리가 잽히지(잡히지).

솔랑솔랑 - 부솔래솔래. 시나브로.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빠져나가는 모양. ¶호주머니 잔돈은 아이 놈들 과자 값으로 솔랑솔랑 다 없어지고 이제 한푼도 없네. ≒시심사심.

시뜨갑다 - 형굉장하다. 대단하다. 지겹다. 진저리가 나다. ¶에레서(어려서)부터 공부 허란(하란) 소리는 시뜨갑게 들었다./ 이번에 시집온 각시는 시뜨갑게 이쁘다더라(예쁘다고 하더라)./ 그런 말 듣는 것만도 이제는 시뜨갑다.

시르르 - 부사르르. 스르르. ¶뱀은 난데없이 발부리에서 시르르 앞동질러(앞질러) 가는 서슬에 여인 아닌 사내라도 흠칫 멈추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시심사심 - 부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차츰차츰. ≒솔랑솔랑. ≒솔래솔래

시어주다 - 동인정해 주다. 축에 끼워 주다. ¶아무리 잘난 치(채) 해도 남이 안 시어주는 것을 어떻게 헐(할) 것이여.

썸쩍 - 부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모양. 순간의 부주의로. ¶아부지 앞에서 썸쩍 한다는 소리가 그만 안 해야 할 소리를 해 부렀다(해 버렸다).

ㅇ

아래대미 - ㉮우대미의 반대말로 마을 아래께에 있는 집들을 이르는 말. =아래뜸↔위뜸.

아심찮다 - ㉯생각지도 안 했는데 고맙다. ¶(뜻밖의 선물을 가져온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집에 가서 '아심찮다'고 말씀 디레라(드려라)./ 아심찮게 이런 (좋은) 반찬을 주어서 맛있게 먹을라요(먹겠습니다).

※ '안심찮다'와는 그 쓰임이 달라서 의외의 도움을 받거나 선물을 받아 고마워할 때 쓴다.

아심찮이 - ㉰생각지도 안 했는데 고맙게도. =아심찮게. ¶아심찮이 이런 것을 다 주시오=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좋은) 것을 다 주십니까.

옴니암니 - ㉰이것저것 모두를 합해서 셈하는 모양.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셈하거나 따지는 모양. ¶옴니암니 따져보니 이번 가을에 들어간 품삯만 허드라도(하더라도) 추수해서는 못 갚게 생겠소(생겼습니다).

옴스론 : 이 - ㉱전부. 온전히. 고스란히. 한꺼번에 모두 다. ¶불나서 집이 옴스론이 다 탔다.

유가시 - ㉮음식 차별. 차별 대접. 흔히 '음식 유가시'의 형태로 쓰여 음식을 먹이거나 대접하면서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이름. ¶사람이 차별을 하더라도 음식 유가시를 하는 것은 아니여. 그러다가는 베락맞는 것이여 = 사람이 차별을 하더라도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다가는 벼락맞는 것이야.

유가시하다 - ㉯음식 차별하다. 차별해서 먹이다 또는 차별해서 대접하다. ¶서러도 서러도(아무리 서럽다 해도) 음식 유가시하는 것처럼 서런(서러운) 것은 없다.

-잉 - ㉲강조하거나, 당부, 감탄, 동의, 긍정, 소망 등을 나타내는 말끝에 붙는 접미사로 다정하고 정겨운 대화에서 쓰이나 특별한 뜻은 없다. 이걸 붙이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밤질(밤길) 조심해서 가거라잉(응)/ 잘 가시씨요잉=부디(아무쪼록) 잘 가십시오./ 새 각시 참 이쁘네

잉=새색시 참 예쁘네요 정말./ 영식이가 꼭 대학에 들었으면 좋겄구만잉 = 영식이가 꼭 대학에 붙었으면 좋으련만 참. ※손아래 사람에게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잉' 대신 '-응'도 쓰인다.

ㅈ

자그르 - ㊐소녀들이 낮은 소리로 한꺼번에 웃는 모양. ¶어느 수업시간에 이런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자그르 웃었다.

자끌대 - ㊎가을에 조의 이삭을 잘라내고 남은, 조의 말린 대. =짜끌대. ≒서숙대. ¶곡식에 붙은 것이라면 '콩대, 메밀대, 보릿대, 수숫대…'하면서 '조'의 그것에 이르러서는 따로이(따로) '자끌대'라는 상냥한 이름을 붙이기까지 한다.

작자글 - ㊐떠들썩하게 시끄러운 모양. ¶초저녁에 동네 아래대미에서 작자글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싸웠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급우들을 작자글 웃기었던 것이다.

전 : 작 - ㊎싸움. 다툼. 갈등 상태. 아옹다옹 싸우는 사이. ¶둘이는 만나기만 하면 전작이었다=둘은 만나기만 하면 아옹다옹 싸우는 사이였다.

ㅍ

폴거리 - ㊎무리. 권속. 떼. ¶그래도 즈그 폴거리라고 감싸고돈다=그래도 저희네 권속이라고 감싸고돈다.

풍개질 - ㊎웅덩이나 냇물의 일부를 막아 물을 품어 내고 안에 갇힌 고기를 잡는 일. ¶(자기 자신의 주변머리 없음을 비유적으로 변명하면서) 나같이 재간 없는 놈은 막고 품는 풍개질 이상 학실한(확실한) 고기잽이(고기잡이)는 없어.

ㅎ

하차잖다 - ㊍하찮다.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별 가치가 없다. 성에 차지 않다.

¶하차잖은 것 가지고 생색내고 있네./ 고까지 술 둘이커녕 한자 묵기도 하차잖다= 고까짓 술 둘은커녕 혼자 먹기(마시기)도 성에 차지 않는다.

해질꼴새 - ㊥해질 무렵. 날이 저물 무렵. ¶우리 암탉은 꼭 해질꼴새 대어야(되어야) 알을 낳는다.

훙청 - ㊦가로 걸치어 있는 긴 장대의 중간이나, 한 쪽을 잡고 있는 간짓대의 끝이 위 아래로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양. ¶낚싯대 끝이 훙청 히는(휘는) 것을 보니 월척이 물렸나 부다(보다).

훙청훙청 - ㊦'훙청'이 세거나 반복되거나 잦음을 나타냄. 작은 말은 '홍창홍창'.

훙청거리다 - ㊧가로 걸치어 있는 구름다리나 긴 줄이 상하로 출렁이듯 움직이거나, 잡고 있는 간짓대의 다른 한 끝이 탄력 있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작은 말은 '홍창거리다'. ¶산골짜기의 구름다리가 어찌나 훙청거리던지 무사서(무서워서) 못 건넜다./ (육지에서 배로 걸쳐 놓은 발판을 건너면서) 발판이 너머 훙청거려 가망가망 조심해서 건너야겄다=발판이 너무 위아래로 출렁거려 가만가만 조심해서 건너야겠다.

히청거리다 - ㊧서 있는 것이 좌우로 흔들린다. =휘청거리다. ≒비틀거리다. ¶저 사람 술 묵고 히청거린 것 보소. 대낮부터 꼴 좋구만=저 사람 술 마시고 휘청거리는 것 보게. 대낮부터 꼴 좋구먼./ 아퍼서(아파서) 여러 날 누어(누워) 있다 나왔더니 다리가 히청거려서 잘 못 걷것네(걷겠네)

※ '히청거리다'는 '휘청거리다'가 단모음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훙청거리다'와 '히청거리다'는 언제나 구별해서 쓰인다.

이 고장 사투리 가운데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전남방언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의 일부를 골라 엮어 보았다.

다른 고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고장 사투리가 표준어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 '가랑이→가랭이 또는 가래이, 지팡이→지팽이 또는 지패이, 고기잡이→고기잽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ㅣ모음 역행 동화하는 것이 많다. 그

리고 '가래이', '지패이'의 예는 'ㅇ'음이 탈락하는 동음생략의 경우라 하겠다.

○ '바위→바우, 의논→으논, 예쁘다→이쁘다, 희다→히다, 휘날리다→히날리다'에서처럼 복모음이 단모음화하는 경향이 있다,

○ '길→질, 견디다→전디다, 형님→성님'과 같이 구개음화하여 발음한다.

○ '조금→쪼끔 또는 쬐끔, 질기다→찔기다, 세다→쎄다'와 같이 날이 갈수록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가는 것을 들 수 있겠다.

○ 한편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낱말의 음절 사이나 체언과 조사 사이에 ㄱ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앞 것이 표준어이고 맨 뒤가 현실 발음이다).

그때에— 그때+ㄱ+에 =그땍에 =그때게

눈알— 눈+ㄲ+알 =눈깔(눈알의 낮춤말) ※알사탕→ 눈깔사탕

똬리=또아리—또+ㄱ+아리 =똑아리 =또가리

아홉— 아+ㄱ+홉 =악홉 또는 악옵 =아콥 또는 아곱

위로—우+ㄱ+으로 =욱으로 =우그로

위에(서)— 우+ㄱ+에(서) =욱에(서) =우게(서) 등이다.

이밖에 '괜히', '이유 없이', '까닭 없이'의 뜻을 가진 사투리로 '맬없이(매 : 럽시)'와 '맬겁시'가 나란히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맬없이'에 ㄱ이 첨가되어 '맬겁시'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맬+ㄱ+없이 =맬겂이 =맬겁시'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사투리에서는 유일하게 ㄱ음이 첨가되어 쓰이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수집된 것으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다음 예와 같이 ㄱ음이 탈락하여 발음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다.

생기다→생이다, 생겼다→생엤다 ¶생인 것이 꼭 즈그 아부지 탁했다('타겠다'로도 발음함)=생긴 것이 똑 자기 아버지 닮았다./ 고것 참 이쁘게 생엤네=고것 참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몹시 안타까웠던 것은 '앗사리(あっさり⇒산뜻이, 깨끗이, 시원스럽게), 조시(ちょうし=調子⇒상태), 단도리(だんどり=段取り⇒채비, 단속), 입빠이(いっぱい⇒가득)' 등과, 그 쓰임으로 보아 니즈쿠리(にづくり=荷造り⇒짐꾸리기)의 와전으로 추정되는 '미스쿠리'라는 반갑지 않은 일어의 찌꺼기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일부는 사투리로 오인되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건축 기술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상당수이며 몇몇의 어휘들은 일제와 무관할,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도 스스럼없이 쓰이고 있었다. 하루빨리 순화되어야 할 대목이다.

어릴 적에 어른들이 쓰고 들려 주시던 사투리는 그분들의 그때 모습과 함께 부드럽기도 했고 모나지도 않았으며 다소곳했던 것으로 귓전에 남아 있고 머리 깊숙이 새겨져 어떤 것은 그 말을 듣던 정경까지 되살아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고장에서 면담 채록하여 활자화한 일부 간행물에서나, 연말에 열리는 '사투리 경연 대회'에서나, 그것을 한데 모아 놓은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옛날에 들었던 푸근하고 정감 어린 말씨나 어휘들을 접할 수 있어서 정답고 반갑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것은 세태의 흐름을 반영한 탓인지 지난날의 말씨나 표현보다는 조금은 과장되고 거세진, 서먹서먹한 것이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도 한다.

이상 사투리 수집 과정에서 느낀 바를 적어 보았거니와 전국의 여러 고장에 흩어져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을 소중한 언어 자산이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잘 갈무리하여 쓸 것은 가려서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글을 맺는다.